

집단따돌림(왕따)에 대한 이해 : 발달경향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박종호*

초 록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왕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발달경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발달경향이 학생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지속성 여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 추이는 남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또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나 가해경험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었던 집단은 일시적이거나 회복된 집단, 또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존감, 높은 수준의 불안/우울을 보였다. 특히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경우 공격성 수준에서 발달유형과 학생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피해자, 발달경향, 정신건강, HLM

* 한국교육개발원

I. 서 론

집단따돌림(왕따)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면서 동시에 학교폭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개념이다. 실제로 집단따돌림(왕따)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폭력 유형이며 신체폭행과 같이 심각한 유형으로 악화되기 이전에 거치는 과도기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수 십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집단따돌림 연구가 수행되었다. 집단따돌림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집단따돌림(왕따)의 실태조사 연구로서 학교급별 피해율을 추정하는 연구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박효정 외, 2006). 두 번째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의 탐색연구이다(이혜경, 김혜원, 2001). 주로 개인 특성이나 가족 및 학교환경 변수가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이 학교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이귀숙, 정현희, 2005; 이은주, 2004).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예방이나 대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집단따돌림 연구는 주로 횡단면 자료나 일회적인 보고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의 발달경향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집단 학생의 집단따돌림 발생비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가 발달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집단(cohort)의 특성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행동은 종단적 자료를 통해 발달경향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 만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점차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놀림이나 따돌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중·고등학생 중에는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으며,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입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발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

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자료를 통해 집단따돌림의 발생률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의 지속성 및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 발달경향은 일반 학생들이 겪는 변화추이로서 의미가 있다면 가해 및 피해경험의 지속성 여부나 변화 양상은 개인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더 이상 집단따돌림 행동에 개입하지 않는 반면에 이 시점에 새롭게 개입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적인 발달경향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발달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부적응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권준모, 1999; 이귀숙, 정현희, 200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집단따돌림(왕따)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의 발달경향을 분석하고 성별에 따라 발달경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발달 추이를 무경험 집단, 일시/회복집단, 지속/악화집단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집단따돌림(왕따)의 정의

최초로 집단따돌림 연구를 수행한 Olweus는 집단따돌림(왕따)을 한 학생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Olweus, 1993). 유사하게 구본용(1999)은 집단따돌림을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소외시켜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반면에 집단따돌림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이춘재와 곽금주(2000)는 한국의 왕따 현상을 반드시 여러 명 또는 특정 집단에서 따돌림

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 노성호 등(1999)도 학급에서 전부 혹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현상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바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은 학교폭력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일부 혹은 전체 구성원이 집단(학급)의 구성원(들)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때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는 피해경험으로, 따돌림을 행하는 경우는 가해 경험으로 구분한다.

2. 집단따돌림(왕따)의 발생비율: 학교급과 학생성별

집단따돌림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접근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는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발달경향보다는 학교급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급과 함께, 선행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발생비율에 있어서 학생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Olweus(1979) 연구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왕따)은 초등학교 2~6학년에서 가장 빈번하게(11.0%) 나타났고 중학교 1~3학년에서는 절반정도(5.4%)로 감소했다. 또한 학생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0.7%와 중학교 11.3%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초등학교 4.0%에서 중학교 2.5%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한 학생의 비율은 28.0%이었으며 이를 학년별로 나누어 보면, 6학년 학생이 37.0%, 9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이 28.0%, 1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0%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 5.6%, 중학생 2.7%, 고등학생 1.4%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박효정 외, 2006)에서도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학생들이 보고한 집단따돌림(왕따) 피해율은 초등학생(3.9%), 중학생(1.8%), 실업계 고등학생(1.5%), 일반계 고등학생(0.8%)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왕따) 피해율이 높

아졌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왕따) 발생비율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 연구는 학교급이나 학생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비율을 추정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권준모, 1999). 추후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율 이외에도 가해경험의 발생비율과 이에 대한 성차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종단적인 자료를 통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발달추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의 변화추이

집단따돌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단따돌림 가해자나 피해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아있을까? 또는 중학교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몇몇 대표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Olweus(1978)는 13세에 집단따돌림 가해자나 피해자로 분류된 소년들이 3년 후에도 여전히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아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유치원 연령에서부터 확인되었다.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에 의하면 200명 중 8.5% 아동은 유치원 연령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또한 Kochenderfer-Ladd와 Wardrop(2001)는 유치원 연령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4년에 걸쳐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전체 연구대상의 4%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얻은 집단따돌림의 안정성 계수는 인접한 년도에서 .27에서 .41 정도의 상관을 가지며 2년 이상의 격차를 보일 경우 .16($p < .05$) 정도의 상관계수를 발견하였다. 즉 몇몇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반면에 다른 아동들은 산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단기·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의 변화 추이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2001)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분석하였

다. 4개월의 간격을 두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에 1차 조사에서는 가해성향이나 피해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이 가해성향이나 피해성향을 보였다. 유사하게, 이귀숙과 정현희(2005)도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은 1차시기에 비해 2차시기에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피해경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단 따돌림의 가해경험은 줄지만 피해경험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안정성 또는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가해경험은 상황이 바뀌거나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개인으로 환원해 보면 어떤 학생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아 있는 반면에 다른 학생은 집단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집단으로 복귀하기도 하며 몇몇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가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즈음에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4. 집단따돌림 발달유형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경우라면 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적응의 문제는 심각성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쉽다. 피해집단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집단에서도 나타날까? 아니면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타날까?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귀숙과 정현희(2005)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1학년(1차시기)과 3학년(2차시기) 두 시기에 걸쳐 집단따돌림, 자기효능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교우관계 등을 측정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학생들과 가해경험이 높고 피해경험이 중간인 학생들은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횡단적으로는 자기효능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였고 종단적으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친구관계, 공동생활에서의 부적응을 보고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이 7개월 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은주, 2004)에서도 지지되었다. 즉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단기·중단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해경험 역시 전반적인 존중감의 하락과 관련 있었다.

국내의 연구가 단기·중단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초등학교 연령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 연령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이나 학교 혐오를 보고하였다. 또한 Kochenderfer-Ladd와 Wardrop(2001)는 유치원 연령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나 피해경험이 없었던 학생보다 더 많이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Warman과 Cohen(2000)은 아동의 가해경험 여부에 따라 무경험 집단, 안정적 가해집단, 중단집단, 촉발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의 또래선호도를 비교하였으며 Nagin과 Tremblay(1999)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집단, 높은 수준에서 감소한 집단, 중간수준에서 감소한 집단,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무경험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단따돌림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해경험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발달경향은 학생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발생비율이나 성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가해행동 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성차는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횡단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소수의 종단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연령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에 집단따돌림의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변화추이와 더불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이 지속되는 경우, 중단된 경우, 또는 늦게 시작된 경우 등 여러 가지 발달유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피해자 집단이 일시적인 피해자 집단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종단연구거나 중학교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연구의 주요 대상 집단이 아니었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발달유형을 구분하고 발달유형별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의 발달경향을 조사하고 학생성별에 따라 발달경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집단 따돌림 발달유형을 무경험, 일시/회복, 지속/악화 집단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자존감, 우울과 공격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지속성 여부나 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입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학교환경이나 또래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행동의 감소경향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따돌림은 신체적·물리적인 유형과 언어·대인관계 유형을 포괄하기 때문에 학생성별에 따라 발생비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무경험, 일시/회복, 지속/악화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지속/악화 집단이 무경험이나 일시/회복 집단보다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학교 2학년 패널자료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3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정된 3,449명이 연구대상으로 되었고 이 중 남학생은 1,725명,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2. 측정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집단따돌림(왕따)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고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자아존중감, 공격성, 불안/우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한 청소년패널자료 분석연구(2006)에 기초하였다.

국내·외 집단따돌림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연령 집단에 국한되어 왔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나 가해행동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집단따돌림(왕따)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집단따돌림(왕따)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변인은 일탈경험을 측정하는 일련의 문항에서 추출되었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은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킨 적이 있는지 질문한 후, 있다면 몇 회인지를 적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변수는 가해경험이 없다고 반응한 경우는 0으로, 가해경험이 있다고 반응한 경우는 학생이 적은 횟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해경험은 0에서부터 200까지 존재하였으며 평균값은 .11~.33($1.37 \leq SD \leq 3.70$)이었다.

마찬가지로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은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응답한 한 경우에는 몇 회에 걸쳐 피해를 경험했는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변인을 위해 피해경험이 없다고 반응한 경우는 0으로, 피해경험이 있다고 반응한 경우는 학생이 적은 횟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해경험은 0에서부터 200까지 존재하였으며 평균값은 .03~.20($0.31 \leq SD \leq 4.08$)이었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은 자료의 성격상 편포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편포된 자료 사용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robust) HLM 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료 분포에서 극단적으로 많은 횟수를 보고한 사례는 1~2명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행동에서는 중학교 2학년 자료에서 1명이 100회를 보고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자료에서는 1명이 200회를 보고하였다. 피해행동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자료에서는 100회를 보고한 학생이 2명 있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자료에서는 1명이 200회라고 응답하였다.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동일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였기에 학생들이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6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자아존중감의 예시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등이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75였다.

3) 공격성

공격성은 6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공격성의 예시문항은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등이다.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4) 불안/우울

불안/우울은 6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불안/우울의 예시문항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이다. 불안/우울의 신뢰도 계수는 .82였다.

3. 분석방법

1) 집단따돌림 발달경향 분석

위계적 선형분석(HLM)을 이용하여 개인의 집단따돌림(왕따)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HLM은 개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며 특히 개인의 변화 추이를 직선적 변화 이외에도 이차방정식을 통한 급격한 상승이나 감소 경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이 자료가 편포되어 있거나 특정 시점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HLM 분석은 적용될 수 있다.

HLM 분석의 수준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시간 변인의 경우, 직선적 변화는 중학교 2학년을 0, 중학교 3학년을 1, 고등학교 1학년을 2로 코딩하였으며 이차곡선 변화에서는 직선적 변화의 시간변수를 자승화하여 0, 1, 4로 코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가 세 시점이어서 2개의 무선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2수준에서 이차방정식 곡선의 오차변량은 추정하지 않았다.

〈1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alpha_{ti} + \pi_{2i}\alpha_{ti}^2 + e_{ti}$$

Y_{ti} = t시점에서 개인 i의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

π_{0i} = 시작점에서의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의 평균값

π_{1i} = 시작점에서의 직선적 성장 속도

π_{2i} = 시작점에서의 곡선적 성장 속도

e_{it} = 오차변량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gamma_{0i}$$

$$\pi_{1i} = \beta_{10} + \gamma_{1i}$$

$$\pi_{2i} = \beta_{20}$$

β_{00} = 시작점에서의 전체평균

γ_{0i} = 시작점에서의 무선 효과

β_{10} = 직선적 성장 속도의 평균 효과

γ_{1i} = 직선적 성장 속도의 무선 효과

β_{20} = 곡선적 성장 속도의 평균 효과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해 및 피해경험의 발달경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2수준 모형에 성별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1수준 모형은 앞의 모형과 동일하고 2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다.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 + \gamma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 + \gamma_{1i}$$

$$\pi_{2i} = \beta_{20} + \beta_{21}(\text{성별})$$

β_{00} = 시작점에서의 전체평균

β_{01} = 시작점에서의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의 성차(여학생 기준)

γ_{0i} = 시작점에서의 무선 효과

β_{10} = 직선적 성장 속도의 평균 효과

β_{11} = 여학생의 직선적 성장 속도 효과

γ_{1i} = 직선적 성장 속도의 무선 효과

β_{20} = 곡선적 성장 속도의 평균 효과

β_{21} = 여학생의 곡선적 성장 속도 효과

2) 발달 유형별 정신건강 차이 검증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무경험, 일시/회복, 지속/악화 집단으로 발달유형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자아존중감, 공격성,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수준의 집단차이를 검증하였다. <표1>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변화추이를 8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변화추이

측정 시간			가해행동		피해행동	
T1	T2	T3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N	N	N	2,507	(83.3)	2,840	(94.2)
N	N	Y	29	(1.0)	12	(0.4)
N	Y	N	54	(1.8)	24	(0.8)
Y	N	N	353	(11.7)	115	(3.8)
N	Y	Y	8	(0.3)	2	(0.1)
Y	Y	N	32	(1.1)	16	(0.5)
Y	N	Y	18	(0.6)	4	(0.1)
Y	Y	Y	7	(0.2)	2	(0.1)
총계			3,008	(100.0)	3,008	(100.0)

※ N은 집단따돌림 가해(피해)경험 없음, Y는 가해(피해)경험 있음을 의미함

<표2>와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8개 변화추이는 세 가지 발달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가해행동 혹은 피해행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된 무경험 집단(NNN)이다. 두 번째 집단은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 경험이 적어도 한번 이상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는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일시/회복 집단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중학교 2학년부턴 한번 이상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이 있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지속/악화 집단을 구성하였다.

<표 2> 집단따돌림(왕따)의 발달유형

		사례수(%)	하 위 유 형					
가해경험	무경험집단	2507(72.9)	N	N	N			
	일시/회복집단	439(12.8)	N	Y	N	Y	N	N
	지속/악화집단	62(1.8)	N	N	Y	N	Y	Y
피해경험	무경험집단	2840(82.6)	N	N	N			
	일시/회복집단	155(4.5)	N	Y	N	Y	N	N
	지속/악화집단	20(0.6)	N	N	Y	N	Y	Y

※ N은 집단따돌림 가해(피해)경험 없음, Y는 가해(피해)경험 있음을 의미함

IV. 결 과

1. 기술통계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기술통계치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시점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3>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의 기술통계

		전체	남자	여자
학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해행동	중2	.33(2.88)	.31(3.73)	.36(1.62)
	중3	.11(1.37)	.12(1.78)	.09(0.76)
	고1	.12(3.70)	.19(5.19)	.04(0.61)
피해행동	중2	.20(3.21)	.21(3.81)	.18(2.45)
	중3	.03(0.31)	.03(0.35)	.02(0.27)
	고1	.11(4.08)	.14(5.15)	.08(2.59)

2.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결과

1) 집단따돌림(왕따) 가해행동의 발달경향

집단따돌림(왕따) 가해행동의 발달경향을 비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곡선모형으로 가정하였다. 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변화모형보다는 선형모형($\chi^2_{(3)}=652, p<.001$)이, 선형모형보다는 이차곡선 모형($\chi^2_{(1)}=6, p<.01$)이 더 나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차곡선 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가해행동 평균 횟수는 0.334($p<.001$)이었으며 1년에 평균적으로 -.341($p<.01$)만큼씩 하락하였고 감소하는 속도는 .116($p<.05$)로 점차 둔화되었다. 초기평균의 무선효과(τ_{00})와 성장속도의 무선효과(τ_{11})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가해행동의 초기치와 성장속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평균과 성장속도 무선효과 사이의 상관 값(τ_{01})이 부적이므로 초기에 가해 수준이 높았던 학생은 낮았던 학생보다 더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발달 모형 비교

	비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초기평균 가해행동	0.186***	0.030	0.295***	0.046	0.334***	0.049
평균 성장속도			-0.109*	0.043	-0.341**	0.108
평균 가속도					0.116*	0.050
무선효과	변산	표준오차	변산	표준오차	변산	표준오차
초기평균 가해행동	0.051	0.085	2.294	0.196	2.301	0.196
평균 성장속도			3.036	0.156	3.041	0.155
(초기평균*성장속도) 제1수준 오차	7.961	0.146	4.911	0.127	(-.807)	0.127
모형비교						
χ^2	44137		43485		43479	
df	3		6		7	

(초기평균*성장속도)'= τ_{01}

* $p<.05$ ** $p<.01$ *** $p<.001$

2) 집단따돌림(왕따) 피해행동의 발달경향

가해행동과 마찬가지로, 집단따돌림(왕따) 피해행동의 발달경향을 비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곡선모형으로 가정하였다. 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변화모형보다는 선형모형($\chi^2_{(3)}=974$, $p<.001$)이, 선형모형보다는 이차곡선 모형($\chi^2_{(1)}=7$, $p<.01$)이 더 나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차곡선 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행동의 평균 횟수는 0.200($p<.001$)이었으며 1년에 평균적으로 -.302($p<.01$)만큼씩 하락하였고, 감소하는 속도는 .129($p<.01$)로 점차 둔화되었다. 초기평균의 무선효과(τ_{00})와 성장속도의 무선효과(τ_{11})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가해행동의 초기치와 성장속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평균과 성장속도 무선효과 사이의 상관 값(τ_{01})이 부적이므로 초기에 피해수준이 높았던 학생은 낮았던 학생보다 피해경험이 더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5>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의 발달 모형 비교

	비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초기평균 가해행동	0.113***	0.032	0.157**	0.046	0.200***	0.053
평균 성장속도			-0.045	0.047	-0.302**	0.106
평균 가속도					0.129**	0.048
무선효과	변산	표준오차	변산	표준오차	변산	표준오차
초기평균 가해행동	0.150	0.085	3.876	0.222	2.301	0.196
평균 성장속도			4.344	0.181	3.041	0.155
(초기평균*성장속도)'					(-.807)	
제1수준 오차	8.911	0.163	4.563	0.118	4.902	0.127
모형비교						
χ^2	45279		44305		44298	
df	3		6		7	

(초기평균*성장속도)'= τ_{01}

** $p<.01$ *** $p<.001$

3) 집단따돌림 발달경향과 학생성별의 관련성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발달경향과 학생성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수준 모형에 학생성별 변인을 추가하였다. 우선 가해행동의 초기 수준이나 직선적 성장속도, 곡선적 성장속도에 있어서 학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의 초기 수준, 직선적 성장속도, 곡선적 성장속도에 있어서 학생성별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집단따돌림 발달모형과 학생성별의 관련성

	가 해 행 동		피 해 행 동	
	추 정 치	표준오차	추 정 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절편				
초기평균 가해행동	0.334***	0.049	0.200***	0.059
성별	-0.034	0.098	-0.212	0.118
선형 기울기				
평균 성장속도	-0.341**	0.108	-0.302**	0.095
성별	-0.083	0.216	0.282	0.190
이차곡선 기울기				
평균 가속도	0.116*	0.050	0.129**	0.048
성별	0.083	0.099	-0.073	0.095
무선효과	변산	표준오차	변산	표준오차
초기평균 가해행동	2.301	0.196	3.877	0.221
평균 성장속도	3.040	0.156	4.346	0.181
제1수준 오차	4.901	0.127	4.551	0.118

* $p < .05$ ** $p < .01$ *** $p < .001$

3. 집단따돌림(왕따)의 발달유형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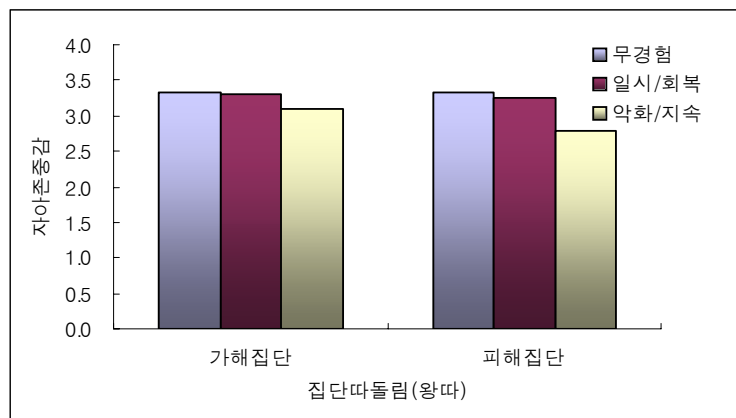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무경험, 일시/회복, 지속/악화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불안/우울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과 발달유형을 포함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자아존중감

집단유형과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발달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2,3000)=4.31, p<.05$).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악화 집단은 무경험 집단이나 일시/회복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유사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유형별로 자아존중감 수준은 달랐다($F(2,3007)=11.16, p<.001$). 피해경험의 지속/악화 집단이 무경험 집단이나 일시/회복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가해행동의 경우, 집단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0.2 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즉 집단따돌림 가해 집단의 자존감 수준은 무경험이나 일시적 가해 집단에 비해 낮지만 피해자만큼 현저하게 낮지는 않았다. 유사하게 피해자 집단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의 자존감은 무경험 학생보다 낮지 않았다. 오직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무경험 집단의 자아존중감보다 0.5점 이상 낮았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또래로부터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악화/지속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처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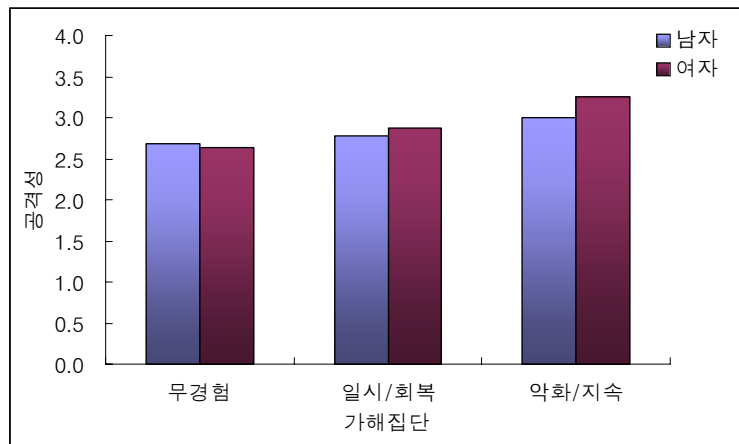


[그림 1] 자아존중감의 집단차이

2) 공격성

성별과 집단유형을 포함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공격성 수준에서 집단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경우, 발달유형의 주효과($F(2,2988)=22.14, p<.001$)와 발달유형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2,2988)=3.91, p<.05$). 우선 주효과로서, 지속/악화 집단, 일시/회복 집단, 무경험 집단 순서대로 공격성이 높았다. 또한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경험 집단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반면에 일시/회복 집단과 지속/악화 집단은 여학생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유형이나 성별에 따라서 공격성 수준은 다르지 않았으며 집단유형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공격성 수준은 무경험 학생의 공격성 수준과 유사하였다.



[그림 2] 공격성의 집단차이: 학생 성별과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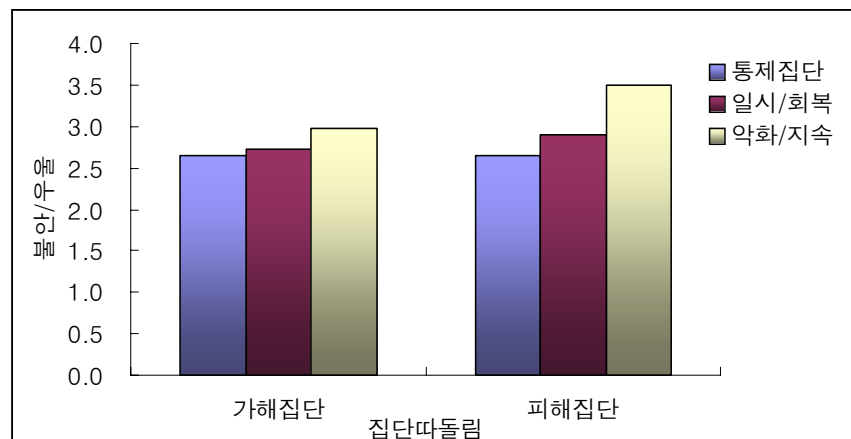
3) 우울/불안

집단유형과 성별을 포함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우울/불

안 수준에서 집단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발달유형에 따라 우울/불안 수준의 차이를 발견하였다($F(2,2990)=7.66, p<.001$).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악화 집단은 무경험 집단이나 일시/회복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우울을 보고하였다.

일관되게,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유형별로 불안/우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2,2997)=16.89, p<.001$). 지속/악화 집단이 무경험 집단이나 일시/회복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우울 증상을 보였다.

피해 집단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반면에 가해집단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가해행동을 보이는 집단 역시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사실은 이들을 위한 처치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불안/우울의 집단차이

V. 논 의

본 논문은 집단따돌림이라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의 발달경향을 살펴보고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이나 가해경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무경험, 일시/회복, 지속/악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보고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갖고 있지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경향은 둔화되었다. 이러한 발달경향에 있어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 따돌림 행동은 놀림이나 별명 부르기, 소문내기,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언어적으로 협박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종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연령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를 통해 이러한 집단따돌림 변화추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연령으로 올라가면서 감소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왜 집단따돌림의 감소 속도가 둔화 되었을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입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학생들은 새롭게 집단따돌림(왕따)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 신체폭행과 같이 가시적으로 피해가 확인될 수 있는 행동보다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과 같이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의 지속 여부에 따라 세 가지 발달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무경험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일시적으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에 노출되었다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집단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세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특히 지속적이거나 악화된 가해자(1.8%)보다

지속적이거나 악화된 피해자(0.6%) 수가 적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해경험보다 피해경험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결과와 상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고등학생은 이미 대인관계나 대처양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피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해성향은 더욱 안정화되어 비행이나 반사회행동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추론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학생들은 일시적이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이들이 보이는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행동은 학교 환경이나 또래 압력과 같은 외부요인보다는 성향이나 성격과 같은 학생의 내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상관없이 일단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여학생은 같은 유형의 남학생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던 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학생 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보이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가해 여학생의 집단따돌림 행동은 상당 부분 기질적 차원의 공격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기부터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관여하는 여학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을 멈추는 반면에 일부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1년까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이 유지될 뿐 아니라 악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에 개입하는 학생들은 집단따돌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학생이나 일시적으로 관여한 학생보다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집단이 가해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우울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가해 집단이나 피해 집단 모두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에 개입되어 있을 경우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안이나 우울은 피해자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했을 때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부적응 지표로 언급된다. 반

면에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높거나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국 불안/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이 집단따돌림 피해의 결과인지, 원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거나 악화된 가해 집단 역시 내면화 문제행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행동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인과성 논의를 떠나서, 가해자 역시 불안이나 우울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기간이나 빈도 외에 괴롭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따돌림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의 내적, 외적 자원이나 대처기술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악화)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용태, 박한생, 1997; 이정희, 고재홍, 2006). 이외에도 집단 유형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과정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초기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며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은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Nagin & Tremblay, 2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은 학생 자신의 보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발달경향을 살펴보고 발달유형별로 정신건강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집단따돌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1997).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대화의광장.
- 권준모(1999). 국내외 집단따돌림 연구방법의 개관.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5, pp. 45-56.
- 김은정·김인경·정태연(2001).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pp. 245-257.
- 노성호(2001).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피해자학연구, 9, pp. 5-29.
- 박효정·정미경·박종효·한세리(2006).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희·고재홍(2006). 유형별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의 비교: 사회관계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 일반, 25, pp. 23-45.
- 이귀숙·정현희(2005). 여자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심리사회적 적응: 2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 학교, 2, pp. 1-17.
- 이은주(2004). 집단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pp. 141-165.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 발달, 13, pp. 65-80.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종철·이민아·이기학(1999). 초등학교의 집단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 pp. 95-108.
- Boulton, M., J., and Peter, K. S.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s,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pp. 315-329.
- Kochenderfer, B. J., and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pp. 267-283.

- Kochenderfer-Ladd, B., and Wardrop, J. L. (2001). Chronicity and instability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social satisfaction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pp. 134-151.
- Nagin, D., and Tremblay, E. (2001). Parental and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persistent physical aggression in boys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8, pp. 389-394.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Wiley).
- Olweus, D. (1979). Stability and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pp. 852-875.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Prinstein, M. J., Boergers, J., and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pp. 479-491.
- Salmivalli, C., Lappalainen, M., and Lagerspetz, K. M. J. (1998).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A two-year follow-up. *Aggressive Behavior*, 24, pp. 205-218.
- U.S.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Justice (2006).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6*.
- Warman, D. M., and Cohen, R. (2000). St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26, pp. 277-290.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School Bullying(Wangtta) : Developmental Trend and Relation to Mental Health

Park, Jong-Hyo*

The current study was aimed to explor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gressive behavior and victimization behavior of bullying, and compare levels of self-esteem, aggression, and anxiety/depression for three groups which we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existence/nonexistence of bullying behavior across three time points. The data set of Korean Youth Panel Study (Cohorts of middle school 2nd graders) were utilized for the current study. HLM results showed that both aggressive and victimization behavior decreased rapidly with age but the rate of drop decelerated. This pattern does not differ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Two-way ANOVA results showed that persistent/worse group had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higher levels of anxiety/depression for both aggressor and victim groups. Even female aggressors had higher levels of aggression than male aggressors for both temporary/better and persistent/worse groups. Discussed were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argeting youths who involved in bullying behavior.

Key Words : bullying, aggressor, victim, developmental trend, mental health, HLM

투고일 : 3월 30일, 심사일 : 4월 30일, 심사완료일 : 5월 18일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